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저주와 거룩한 전쟁"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옘: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위로"

신정론(Theodicy) 시리즈 ①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 위로의 하나님

D. A. 카슨 지음 | 한동수 옮김



CLC



## 5주차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반대와 박해”

1. 예수를 따름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2. 예수를 따름은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다
3. 예수를 따름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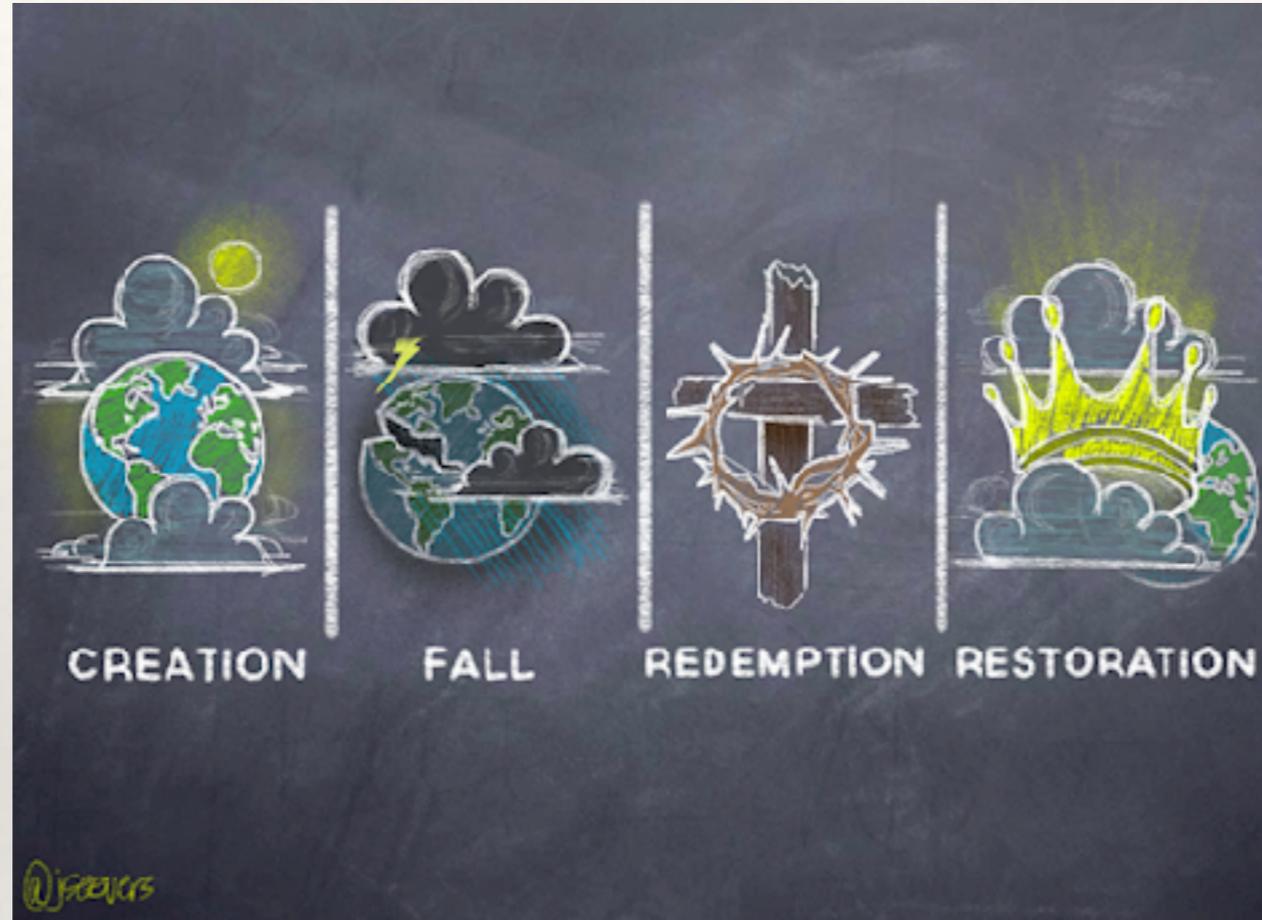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점

#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징계의 고난과 반대와 박해로부터 오는 고난을 구별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그러한 악이 가져오는 고난을 다룰 때에는 다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카슨, 124-5.

## 들어가며

---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막 8:34-38.

# 1. 예수를 따름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

십자가형은 “가장 경멸적이고 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로마 시민은 황제의 승인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형 방법은 노예와 비로마인들에게만 행해졌다.” 카슨, 127.

- 십자가는 피조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 칼 바르트의 “das Nichtige”
- 예수를 따름 = 십자가를 지는 것 =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하는 것, 자기유익에 대해서 죽는 것

## 2. 예수를 따름은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다

- 자기의 십자가를 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발생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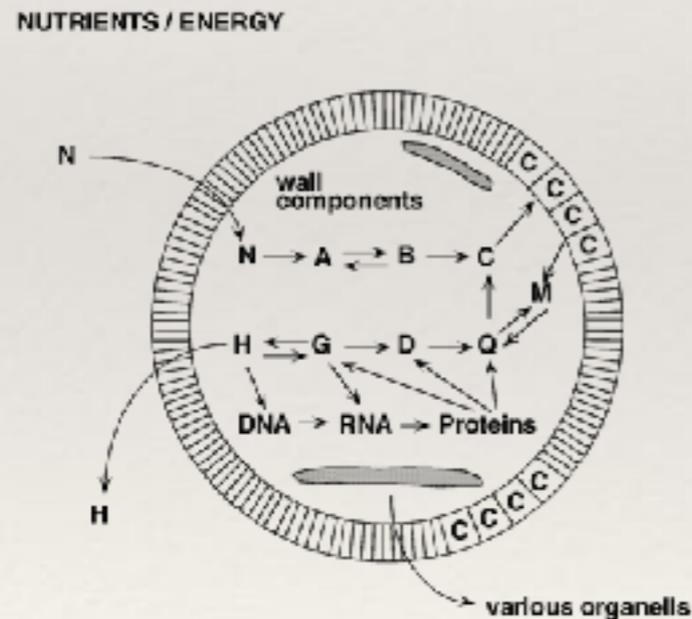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벵전 2: 19-25”

## 2. 예수를 따름은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다

- 신앙인의 삶은 역설이다. 부활을 통해 그것이 입증되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막 8:35

e.g. 피조물적 생명 & 신적 생명



“생명체는 비유기적 자연에 맞서 있다. 생명체는 비유기적 자연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자신에게로 통합시킨다. 이 과정은 화학적 융합 과정과는 달리, 서로 대립하던 두 측면의 자립성이 모두 지양되는 중성적인 산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체는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타자들을 장악하고 있다...이렇게 해서 생명체는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in Werke, Bd. 8. 375.

**AUTOPOIESIS:**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해내는 작업

## 3. 예수를 따름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막 8:38

-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대외적인 드러남이 연결 e.g. 이순신 신앙?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경찰관은 승진이 보류된다. 유대교 가정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의 장례를 치른다. 부모들은 유능한 의사 아들이 의사직을 버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대성통곡한다. 대중매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부적응자 또는 고집불통으로 취급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이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카슨, 130.

-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다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딤후 3:12

---

---

[https://www.youtube.com/watch?v=xw4o\\_2P4rQk](https://www.youtube.com/watch?v=xw4o_2P4rQk)

## 5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

### 목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은 반대나 박해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해당 반대나 박해가 당신에 주었던 해는 무엇이며,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

<https://www.youtube.com/watch?v=Lrv3tQ77jwg>